2016 년 7 월 3 일(주일) 말씀과 묵상(2) "말씀이 육신이 되어"(요 1:1-18)

<도입>

말씀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말씀이 삶에 성육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신앙을 갖고 변화가 없는 이유는 보이지 않는 말씀이 보이는 나의 몸의 행위와 표현과 습관으로 육화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살피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삶과 인격(성품, 가치관, 사고방식, 정신세계...)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며, 무엇을 기대하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1]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인간)되어 나타난 분

1 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사도는 하나님과 또 함께 계시던 하나님이 한 분 더 있었는데, 그분을 "말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분도 3 절에서 창조주라고 말씀합니다.

<3 주전 로고스에 대한 설명 복습> 로고스는 그리스 헬라 권에서 사용하던 말, 만물의 이치(근본)을 뜻하는 말입니다. 헬라권 영역에 있는 이들에게 이 로고스의 실재가 바로 야훼의 말씀이라고 주장함.

14 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우주와 만물의 근본이 되는 말씀이신 창조주 하나님이 육신을 입은 인간이 되셨다는 뜻입니다. 또 사도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영광은 어떤 물리적 광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깊은 의미들이 선하고 아름다운 가치로 인정받을만큼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이 육신이 됨(성육)으로써 가능해진 일입니다.

[2] 말씀은 성도에게 어떤 목적을 갖을까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던 것 같이, 사람도 하나님 말씀으로 성육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사건 선상에서 작은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간적(이 땅의) 차원에서 되는 일이 아니라 위로부터의 생명을 수여 받아서 거듭나야 합니다.

📖 요 3:3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 요 3:5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사람이 예수를 믿고 작은 예수로서의 거듭남을 소원하면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 약 1:18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거듭나게 하신 것.

질문: "그러면 거듭나기만 하면 우리는 말씀의 영광에 자동적으로 이르는가?"
NO 입니다. 왜냐하면 출생만 하고 아기 상태에 머무르는 한 성장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고 알아야 하는 여정을 신실하게 걸어가야 하는 이유는,

📖 엡 4:14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있는 baseline 은 어린 아이 상태에서는 속임수, 유혹,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통찰을 얻게 됩니다.

[3] 말씀이 육신이 됨 vs. 죄가 육신이 됨.

말씀이 육신이 되는 일이 있는 반면에 우리 안의 죄도 육신을 입고 드러납니다. 죄는 자기 중심성(생명의 공급이 끊김)이기 때문에 자기중심적 육신(행동, 말, 습관 등..)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어린 아이는 지극히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러나 어른이 된다는 말은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태도, 즉 사랑이 더 깊어져 이웃과 진리를 위해 충실해지고 헌신하는 성품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죄는 행위로 짓기 때문에 관계의 문제가 되지만 이미 자신의 내면에서 어긋나고, 깨어지고, 상한 것이 더 근본적 문제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죄와 싸운다는 말은 자기가 그런 행위를 안 하기 위해 억누르고, 채벌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겉으로 창조해내는 자기 안의 죄를 다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의 손이 말벌에 쏘여서 마치 죽은 사람 손처럼 흉측하게 변했습니다. 원인은 독이(지극히 미량) 저의 피부 안에서 활동하기 때문입니다. 손 전체를 아프고 붓고 두드러기도 난 육신을 만들었지만 겉으로는 할 일이 없습니다. 안에 있는 독을 제거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표면적 일보다 안의 일이 더 시급합니다.

이와 같이 어떤 사람이 까칠하거나, 우울하거나, 자기방어한다면 그것은 육신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육신을 이렇게 만든 원인이 되는 내면의 상처 또는 결핍으로 인해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 육신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면과의 싸움이 시급합니다.

인간 안에 있는 것들은 분명히 육신으로 나타납니다. 문제는 죄의 육신으로 나타나는가, 아니면 말씀의 육신으로 나타나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4] 말씀 묵상의 중요성

우리는 어떤 강력한 것을 사용해서도 예수님의 성육처럼 성육할 수 없습니다. 내면의 자기 중심적인 사고와 동기와 습관이 점점 하나님 사랑의 중심성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반드시 해야할 일은 말씀 묵상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성육의 근원인 말씀을 보고 읽고 곱씹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은 오늘 한번 더 말씀의 사랑과 능력을 만나서 내면세계와의 충돌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도 말씀 묵상에 힘쓰시고, 하나님을 깊이 야다하는 가운데 받는 말씀이 성도님들의 삶에 육신을 입고 드러나기를 축원합니다.

<나눔의 질문> (질문의 순서에 관계없이 나누시기 바랍니다)

1. 말씀의 깊은 감동을 얻고 내 육신이 성육된 사례가 있다면 나누어 주세요.
2. 반대로, 내게 육신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죄(남을 불편하게 하고, 자신을 수치스럽게 하는)가 있다면 그것을 창조한 이면의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과 싸우고 씨름하기 위해 당신은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3. 자신의 성향이 비롯 잘못된 것은 알지만 남도 불편하게 하지 않고 나도 불편하게 하지 않는 정도로 생각된다면 아무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이 경우라면 성령의 도우심을 입을 필요를 느낄 때까지 부담 갖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자신에 대해 적용).
4. 말씀 묵상에 대한 나의 결단을 새롭게 하시고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